



기독교 세계관 목회 리포트 | 샘물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샘물교회

글 편집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장 13,14절)"

샘물교회는 1998년 서울영동교회에서 분립하여 분당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인도하심을 받고 시작되었다. 교회의 기초인 가정을 회복하고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샘물교회를 소개한다.

가정교회의 꿈

샘물교회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에 교회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2007년 가정교회로 전환하였다.

가정교회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 예배와 교제, 사도의 가르침과 나눔, 전도 등에 힘썼던 사역 형태를 모델로 하였으며 작은 교회인 목장이 모여 큰 교회를 이루는 구조를 가진 교회 체제를 말한다. 가정교회의 기초 단위로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MP)을 소그룹인 목장에서 섬기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향해 나오도록 돕는 일과 목장 내에서 구성원들 상호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작은 교회로 대략 4~5가정으로 구성된다. 현재 가정교회 목장사역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활발하게 경험하며 영혼구원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다.



작은목자 훈련

목자는 목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리더로서 다음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임명한다.

생명의 삶 기독교의 기초 교리와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수료한 이후 성경적인 가치관 형성, 큐티의 기본을 배우는 과정.

경건의 삶 새로운 삶을 수료한 이후 성경말씀을 실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경건에 이르는 삶을 훈련하는 과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경건의 삶을 수료한 이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과정.

이밖에도 부모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전도폭발), 커피브레이크(성경공부) 등이 있으며 성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2박 3일간의 샘 훈련, 신구약별 연구를 중심으로 한 성경 강좌로 성경의 깊은 이해를 돕는 신학강좌와 목자들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리더십 훈련, 행복한 부모학교를 통한 부모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기독교학교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언약의 자녀를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섬기는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학문과 문화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샘물기독교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교육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분당 정자동 샘물교회 안에, 중고등학교는 운중동 판교샘물교회에 있으며 25개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샘물기독교교회에서는 신앙이 다음세대로 전수되고, 우리의 자녀를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분립개척교회의 꿈

샘물교회는 만 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 보다는 천 명이 모이는 열 개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을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분립 개척운동'을 이루어가고 있다. 샘물교회는 서울영동교회의 네 번째 분립개척으로 탄생한 교회로서 개척 때부터 교회분립 개척운동을 실천, 2002년도 교회설립 3년차에 동백에 샘빛교회를, 2010년 9월 샘물중/고등학교 이전과 함께 서판교 운동동에 2차 분립 교회인 판교샘물교회를 세웠다.

순교의 별

샘물교회는 선교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교회이다. 하나님께서는 2002년 중국에서 사역하던 안대욱 선교사와 2007년 아프리카에서 배형규 목사, 심성민 형제 아들 세 분의 순교자를 샘물교회에 주셨다. 샘물교회는 순교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아프리카의 순교를 넘어 세계 각처에서 복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매년 단기봉사팀을 파송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현재 해외 18개국 6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특히 2007년 7월의 아프리카 순교 사건은 우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의 상처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샘물교회는 순교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써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차세대준비사역

라이즈업비틴즈: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어라'라고 외치는 라이즈업비틴즈는 1999년 성남 분당 지역에서 비틴즈를 모체로 시작된 10대 청소년 연합운동이다. 이밖에도 샘물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으며 '문미엔'이라는 사역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종사 크리스찬 연합운동을 통하여 문화사역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샘물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있다.

말아톤복지재단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 중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전문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주간보호센터, 그룹홈, '올'(커피&티)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마루 성남 모란역, 태평역 일대의 일용직 근로자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과 다문화가정돕기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샘물봉사단 교인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영역 및 활동을 국가주도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봉사의 욕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섬김사역을 하고자 세워졌다.

은빛샘 가까운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와 교육, 친교와 봉사, 선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사랑부/예바다부 장애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통역, 예배시작 전 수화배우기, 수화교실 운영 등으로 장애인들과의 예배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역이다.

샘물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더욱 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한다.

	<p>박은조 목사 고려 신학 대학(B.A)과 고려 신학 대학원(M, Div), 영국 London School of Theology(M.A), 영국 Sall Nations Christian College (Dip, Miss.) 그리고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 Min.)에서 훈련받았다. 가족으로는 어머니(김점순)와 아내(양미희) 그리고 세 자녀(주현, 미현, 대은)가 있다.</p>
--	--